

# 386세대 부모들이 어린이책 르네상스 일궜다

창작에서 소비까지 도맡아 어린이책 단행본 시장 본궤도 올려



자녀교육에 적극적인 386세대 엄마들이 어린이 단행본 시장을 일궜다. 사진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서점에서 책을 읽는 모습.

386세대 부모들이 어린이책의 주요 소비자층으로 등장하면서 어린이책을 질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은 기정 사실이다. 현실 참여적이고 개혁 지향적인 이 세대의 가치관이 아동출판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어린이 출판의 질적 전화를 이뤄낸 것이다. 게다가 대학이 보편화된 첫 세대, 공동체적 감각과 개성과 경제력을 골고루 갖췄다고 평가받는 '386 엄마' 들은 어린이책의 소비자, 창작자, 비평가의 자리에 두루 포진해 좌절할 '혁명의 역량'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운동'에 쏟아 부었다.

**'우리 것' 발굴하고 수준 높은 그림책 만들어** 386세대 부모들의 기량이 발휘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다. 이는 아동 단행본 출판이 활성화된 때와 일치한다. 그 최초의 시도는 아동문학에 단절된 '전통'의 숨결을 불어넣는 것이었다. 사계절의 <저학년 문고>, 보리의 <겨레아동문학선집(전10권)>, 보림의 전통문화 그림책 시리즈인 <솔거나라>가 모두 그들의 아동출판 입성을 알린 신호탄이었다. 전집의 카르텔 속에 게릴라처럼 잠입한 이 아동서들은 풀뿌리처럼 번져서 국내 창작동화의 인프라를 구성했다.

유아용 놀이책이 대부분이었던 그림책에 '창작'과 '질'의 개념을 도입한 것도 386세대 부모들이다. 1995년과 1996년을 전후해 번역그림책 시리즈를 시작한 비룡소, 권정생·이원수·조은수 등 국내 작가들의 단행본 그림책을 펴낸 길벗어린이 등이 그림책 시장을 닦았다. 이는 책을 만드는 공급자와 사 보는 소비자의 기대지평이 일치했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이 있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혁명의 구호에서 보듯 386세대들의 유별난 결속력은 어린이책 관련 네트워크를 구성해나갔다. 1990년대 초 '초방' 등을 필두로 문화운동 차원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어린이 전문서점, 한겨레문화센터 등 각종 워크샵, 어린이도서연구회 산하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의 전국적 확산, 그림책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동호회들, 아예 창작·기획·번역집단으로 나선 어머니들이 그 예다. 소비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네트워크는 어린이책에 대한 고급한 정보를 생산, 공유함으로써 질 높은 책을 시장에서 살렸다. 그림책 해외원서를 분석해 출판으로 연결시키는 일도 종종 있다. 고가의 책들을 공동으로 싸게 구매하는 소비 형태도 이런 네트워크의 산물이다.

진선출판사의 심상우 편집장은 386세대 엄마들이 "교육수준이 높고 개성이 강하며 자기중심적이고 창의적인 소비 패턴을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 평균 1.5명의 자녀구성에서도 드러나듯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과도한 지출도 마다하지 않으며, 비판적 책 고르기도 단행한다고 말한다. 꼼꼼한 책 고르기는 책의 질적 향상과 함께 한편으로는 어린이 책의 장르별, 연령대별 세분화도 이끌었다. 학급문고와 지식그림책, 현장학습가이드북, 책날개의 연령표시도 386세대 부모를 의식한 기획과 편집의 결과물이다. 전교조 합법화 이후 학교 바자회 활성화, 신학년 추천도서목록의 고급화를 이끈 이들도 386 엄마들이다.

**교육제도가 창의적 어린이책 문화 가로막아** 교보문고측은 가족나들이를 서점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전한다. 예전에는 산으로 들로 나갔지만, 독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아이들을 책과 친숙하게 키우기 위해 휴일봉사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게 386세대 부모들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유아 영어교재 시장의 활황이 증명하듯, 내 아이 잘 키우기 및 조기 교육 열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웅진출판의 한희덕 마케팅팀장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은 고민을 하다가도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면 자포자기하고 기존 사회에 적응시키기 바쁘다"며 386세대 부모들의 한계를 지적한다. 독일 아동문학 번역가며 연구자인 김경연씨는 "어린이책 동호회지 <꿀밤나무>를 받아보는 정기구독자는 1천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아이를 위해 어린이책을 연구하겠다고 나선 이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전부다. 대부분 386 엄마들은 환경책과 영어책을 놓고 고르랴 하면 영어책을 고른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책 시장의 성장에서 그림책을 제외하고는 논술시험 등 교육제도가 더 크게 작용한 것 같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자녀교육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 있다기보다는 각종 단체의 권장도서 목록 등 권위에 의존하거나 유행을 타는 경향도 없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아동문화'의 차원이든 우리 애가 다른 집 애보다 나아야 한다는 '극성'의 차원이든 386세대 부모들이 어린이책 단행본 시장을 본궤도에 올려놓은 것은 분명하다. 국내 도서시장 가운데 가장 취약한 곳이 청소년 분야인데, 그들의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요즘 출판계에 다시 한번 신선한 바람이 불지 기대해본다. —강성민 기자